영상문화 육성 공모 이번엔 '갑질 확약서' 뒷말

영상문화진흥원 응모 서류에 '제반 결정 이의제기 않겠다' 사전에 확약서 제출 의무화 일부는 울며 겨자먹기 작성

"다른 지역 사례 참고했지만 사라지는 추세니 추후 조정"

심사 결과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2019년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본보 7월 8일자 8면**)이 이번에는 사전에 응모 단체에서 받은 '확약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응모할 때 필수 첨부해야 하는 확약서에 담긴 문구를 둘러싸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 접수는 지난 5월 7~23일 실시됐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이 과정에서 응모 단체에 지원신청서, 행사계획서, PT 자료, 대표자 이력사항, 전년도 사업 평가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 등을 내도록 했다.

이중에서 확약서에 제시된 일부 내용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2019년도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의 지원 선정 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원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내부 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문구 탓이다. 해당 사업을 신청한 단체들은 이같은 확약서를 사전에 써야 했는데 공모에 참여했던 한 단체의 관계자는 "확약서를 내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응모 서류에 포함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문화계 관계자는 "심사 결과가 공개된 뒤에 응모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문화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껏 공모에 참여하며 그런 확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공모 기관의 갑질 행태를 보여준다"는 또다른 지적도 있었다.

이와관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다른 지역 유사 기관들의 확약서를 참고했다"며 "기관 입장에서는 응모자들이 이의제기 않겠다는 걸 확인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확약서 제출 여부는 공모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충남, 인천, 광주 등 일부 문화 관련 기관에서도 이의제기를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고 있더라"면서도 "최근에는 확약서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하니 좀 더 확인을 거쳐 앞으로는 확약서 내용을 변경하든, 형식을 바꾸든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지역 예술인이 빚어낼 오페라의 세계로

제주오페라연구소 모태로 지난달 오페라인제주 창립 창단 작품 '해녀' 제작 추진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창작오페라에 담겠다는 이들이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사단법인 오페라인제주다.

이 단체는 2015년 창립한 제주오페라연구소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오페라 '나비부인'과 '토스카', 콘서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등을 공연하며 오페라 저변을 넓혀왔다.

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오페라인제주는 지리적, 경제적 제한 등으로 오페라를 누리기 어려웠던 제주에서 지역의 음악인 등 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전문적인 오페라 공연을 만들 목적으로 꾸려졌다. 정통 오페라 기획 공연, 제주신화·전설 소재 창작 오페라 연구와 개발, 음악교육 지원, 제주소재 창작 가곡 장려와 지원, 제주 음악인 연주 기회 제공 등을 큰 줄기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창단공연으로 창작 오페라 '해녀'(대본 김숙영, 작곡 현석주)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11월 12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인 '해녀'는 9월말쯤 대본과 음악이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출연진을 확정하고 연습에 나서기로 했다. 9월 6일에는 오페라인제주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제주시 동지역 주민자치센터 오페라 프로그램, 제주신화 소재 오페라 공모사업 참여 등도 계획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페라인제주 강용덕 이사장(오른쪽)과 오능희 단장.

제주메세나협회 이사로 참여한 강용덕 서호건설이앤씨 대표가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단장은 제주성악협회 회장인 오능희 성악가, 예술감독은 음악협회제주도지회장인 허대식 제주대 음악학부 교수가 맡았다.

오능희 단장은 "현재 성악 전공자와 동호인이 함께하는 오페라인제주 합창단을 구성해 연습을 벌이는 등 오페라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며 "제주대와 연계해 음악학부 학생 대상 오페라 아카데미 운영 등 후학을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쪽지

하반기 문화분야 추경 50억

제주도는 도민 밀착형 문화정책 추진에 추경 50여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 제주도는 지역특화 소재 콘텐츠 개발,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등에 7억원 넘게 쓴다. 유휴시설 창작공간, 음악창작소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엔 30여억원을 배정했다. 예술공간 이아, 산지천갤러리, 꿈바당어린이도서관 등에 대한 운영비 8여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제주 브랜드 공연 개발,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추자섬 마을미술 프로젝트 등에도 3여억원을 나눈다.

위촉직 문화예술위원 공모

제주도는 제3기 문화예술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공모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2기 문화예술위원회 임기 만료(7월 26일)에 따른 것으로 문화예술·문화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이달 26일까지 20명을 모집한다. 제주도문화예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당연직 4명, 위촉직 21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중학생 웹툰창작체험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웹툰창작체험반을 운영한다.

지역웹툰캠퍼스 조성 사업으로 7월 30~8월 3일 열리는 강좌에서는 기본 툴 사용법에서 웹툰 완성까지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오전에는 초등학생 대상 '상상이 웹툰이 되다', 오후에는 중학생 대상 '일상이 웹툰이 되다'를 각각 진행한다. 홈페이지(www.acacenter.org) 참고. 문의 064)766-0710.

'요망진 당선작' 11편 본선에

제주여민회는 제20회 제주여성영화제 '요망진 당선작' 본선 진출작을 확정했다.

공모 심사 결과 '24.5'(감독 허지예), 'k대 oo닮음_93년생.avi'(정혜원), '그녀의 씬'(김경주), '기대주'(김선경), '박미숙 죽기로 결심하다'(윤미영), '별들은 속삭인다'(여선화), '연락처'(강지이), '우리는 서로에게'(김다솜), '털보'(강물결), '핑크페미'(남아름), '해미를 찾아서'(허지은, 이경호)등 11편이 본선에 올랐다.

이번주(7월 15일~21일) 무대&미술

강명순의 '제주의 숨결 3'.

프랑스에서 펼친 '제주의 숨결' 따라

강명순 노르망디 초대작 연갤러리서 또한번 전시

프랑스 노르망디에 흩어졌던 '제주의 숨결'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연갤러리를 운영하는 화가 강명순씨가 지난 5월 진행했던 노르망디 꾸탕스 퐁데자르 아트센터 초대전 작품을 제주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한지, 먹, 면 등 천연 재료로 작업한 '제주의 숨결' 연작 등 20여점이 나온다. 강명순 작가가 프랑스에서 느꼈던 감성이 더해진 '수련-모네의 정원' 연작도 포함됐다.

<공연>

▶백옥토 플루트 독주회=7월 15일 오후 7시30분 아벡아트홀. 713-7799.

▶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천송재단이 주최 7월 17~20일 서귀포예술의전당, 서복전시관. 010-7176-5033.

▶남녕고 청송음악회=7월 19일 오후 6시30분 제주아트센터. 010-4473-2229.

▶현제명 오페라 '춘향전'=제주도문화진흥원 기획초청공연으로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이 제작한 '춘향전'을 만날 수 있다. 7월 19일 오후 7시30분, 7월 20일 오후 3시와 7시30분 문예회관. 710-7643.

▶제주건반예술학회 정기연주회 '그랜드 콘서트 인 제주'=7월 19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4697.

▶재즈피아니스트 송준서의 '피아노의 숲'=7월 20일 오후 7시 서귀포관광극장. 732-1963.

▶판소리 인형극 '수궁가'=7월 20~21일 오후 5시 서귀포문화빵데리충전소. 738-5855.

▶소프라노 신숙경 독창회=7월 21일 오후 5시 서귀포예술의 전당. 010-2386-3996.

▶제주시티발레단 '잃어버린 정원'=7월 21일 오후 5시 돌문화공원. 010-5036-2031.

<전시>

▶살림하는 붓질=7월 16일까지 김만덕기념관. 759-6090.

▶이창현 개인전=7월 17~31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10-2690-1627.

▶김형석 사진전 '모로코, 온더로드'=7월 18일까지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010-3124-4262.

▶제주청년작가전 25년 '구본신참(舊本新參)'=7월 18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김산 개인전=제주도문화진흥원 2018 우수청년작가 초청전으로 7월 20~25일 문예회관. 710-7633.

▶백성원 개인전=제주도문화진흥원 2018 우수청년작가 초청전으로 7월 20~25일 문예회관. 710-7633.

▶상묵회 '한라에서 백두까지 묵향 실은 통일 기원'=7월 20~25일 문예회관. 710-7633.

▶강명순 개인전 '제주의 숨결-물들이다'=7월 21~8월 14일 연갤러리. 010-3699-5577. 진선희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1급~6급)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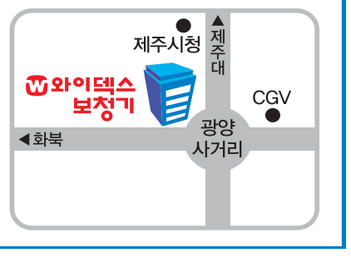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